

국내 생태조경의 현황 및 전망



김현규

에코텍-생태복원 창조
기술연구소 소장, 조경기술사

1. 생태조경의 의의와 전망

(1)서론-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

조경학은 자연과 인간의 조화를 통한 기능적, 미적, 환경의 창조를 목표로 하는 종합과학예술이다. 이 목표를 달성하기 위하여 어느 공간을 이루고 있는 식물, 구조물, 물, 그리고 토지의 형태를 기능적으로 쓸모 있고 시각적으로 아름답게 구성하고자 하는 것이 조경이다. 문자 그대로 경관(景)을 만드는(造)작업이라 할 수 있다.

새로운 밀레니엄의 시작을 앞둔 현시점에서 볼 때 우리의 조경은 새로운 파라다임의 구축이 필요하다고 할 수 있다. 즉 21세기는 정보, 환경, 실버산업 등이 주요관심 산업이 될 것이라 한다. 그 중에서 환경은

인간 뿐아니라 더불어 사는 지구상의 모든 동식물이 살아가는 서식지(habitat)로서 가장 기본이 될 수 있다 하겠다.

지금까지 인간의 문명의 발달과 도시의 발전은 환경의 보전과 쾌적한 삶의 확보보다는 경제성 논리와 개발위주의 논리가 지배하여 기능적이고 생산적인 효율과 편리성만을 추구하여 왔다.

이로 인한 결과는 환경은 악화되고 야생동·식물의 서식처는 파편화 되거나 사라짐으로써 인간생활환경의 쾌적성과 생태적 가치는 떨어지는 결과를 가져왔다. 이는 개발위주 정책의 산물이라 할 수 있다. 특히, 공간의 창출과 관련한 토목이나 건축은 물론 자연소재와 생물소재를 가장 많이 사용하는 조경분야에서 조차도 미관과 기능성과 편의성만을 중시한 나머지 획일적인 계획으로 인한 무미건조하고 딱딱한 공간들만을 만들어 왔다. 또한 인간이 만든 환경오염에 대한 해결책도 발생한 오염물을 어떻게 처리할 것인가? 에 대한 관

심이 더 커와서 대규모 쓰레기 매립장이나 소각장과 대규모 하수종말처리장등을 건설하여 왔다. 이는 편리해진 인간생활보다 더 큰 비용을 지불하고 있다. 환경의 오염은 심각해 질 뿐 개선의 여지가 별로 보이지 않는다.

이런 시점에서 환경문제의 개선책의 과제는 “지속 가능한 개발을 이루면서 쾌적한 환경을 조성할 방안”과 “개발과 보존의 병행방법”을 만들어 내는 것이라 할 수 있다. 결과적으로 조경계의 관심사는, 리우환경회의에서 ESSD(Environmentally Sound & Sustainable Development-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의 개념이 나오면서 우리 나라 조경계에서도 자연중심의 친환경적 개발, 지속 가능한 개발, 생태계를 모태로 한 인간과 자연이 공생하는 공간 창조 등의 주장이 대두 되었다. 즉 개발위주의 행위에 대한 자연환경의 보전책으로 환경·생태의 개념이 적극적으로 도입되고 있다.

(2) 생태조경이란

최근 지속가능한 도시인 Eco-police(생태도시)(또는 Eco-city) 개념과 함께 Eco-park(생태공원), Eco-tourism(생태관광), Eco-bridge(생태다리), Eco-village(생태마을), Eco-Tech(생태기술)등의 용어들이 환경친화적인 개발로 나타난 새로운 파라다임이라 하겠다. 그리고 "Eco"를 붙인 조경분야들은 ESSD와 같은 맥락이라 할 수 있다.

이러한 시점에서 "생태조경"이라는 단어는 일상적이며 관심의 대상이 되는 단어로 등장하게 되었다.

최근들어 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으며 사회의 각 부문에 있어서 '환경'과 '생태'라는 요소는 더 이상 새롭고 희귀한 요소가 아닌 일상적인 논의의 대상이며 관점으로 변화되어오고 있다. 환경에 대한 논의는 최초 대기, 수질 등 생활환경을 위주로 이루어졌으나 많은 투자와 노력에 의하여 상황이 개선되어가고 있으며 이에 따라 과거와 같은 단선적인 측면에서의 접근이 아닌 자연환경 및 생태측면을 비롯한 다양한 부문에서 접근이 이루어지고 있다.

일반적으로 조경(造景)이라 하면 많은 경우 보기 좋은 경관을 만드는 일이라는 이미지가 강하게 부각되고 있으며 이에 따라 조경부문에서 생태적

접근을 시행한다는데 대해서 많은 사람들이 의구심을 가지고 있는 것이 사실이다.

그러나 조경이라는 단어는 그 자체의 의미에서 생태적 견해를 내포하고 있다. landscape라는 단어는 시간의 경과에 따른 자연환경의 변화와 그 내부에서 생활하고 있는 동·식물을 모두 포괄하는 개념이라 할 수 있다. 즉 '조경'이라는 의미는 기본적으로 자연적이며 생태적인 의미를 내포하고 있는 것이다.

이러한 'landscape'의 의미가 국내에 도입되면서 '造景'으로 번역되면서 자연환경과 생태적 의미는 드러나지 않고 인공적인 의미만이 강하게 인식되면서 각종 개발계획수립 등에서 조경의 의미는 반자연적, 반생태적 성격을 부여받게 된 것이다. 현 시점에 있어서도 조경부문에서 생산되는 계획, 설계 및 시공에 있어 이러한 성격은 여전히 주류를 형성하고 있다.

생태조경은 이러한 문제점을 인식하고 다시 조경의 본래의미를 되찾기 위한 것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조경의 대상인 생물소재들을 인간의 관점에서 일방적으로 다루는 것이 아닌 상호 공존적인 측면에서 생태계의 기능과 원칙을 고려하도록 하는 것이 생태조경의 시작이라고 볼 수 있다. 즉 자연생태계가 지니고 있는 다양성과 순환성, 일정성, 자립성의 원리

에 적합하게 다양한 구조와 활동을 가진 조경대상을 적용하는 것이 생태조경이라 하겠다.

그러나 국내에서의 생태조경은 아직 이러한 근원적인 측면에 대한 이해와 관심이라기 보다는 90년대 이후 자연환경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면서 창출되기 시작한 생태적 시장에 접근하기 위한 수사적인 표현에 불과한 경우가 많다. 생태조경의 타이틀을 걸고 수행되는 인공습지, 자연형 하천, 생태공원, 생태이동통로 등의 계획과 설계는 여전히 과거 이루어지던 관행과 접근과 차별화 되지 못하고 있는 경우가 많다. 생태조경의 관점에서는 자연을 끊임없이 변화하는 동적 대상으로 인식하여야 하며 자연생태계와 인간간의 상호관계를 파악하기 위한 노력을 기울여야만 하는 것이 옳을 것이다. 그러나 90년대 이후 생태조경의 이름을 거록 수행된 사항들을 보면 이러한 근본적인 인식이 부재한 가운데 단지 시설물의 도입과 같은 측면으로 이루어지는 경우를 너무나 쉽게 볼 수 있다. 즉 생태학적 방법보다는 생태학적 현상을 강조하는 방향으로 나아가는 것을 경계해야 할 것이다. 새로운 경향의 생태조경을 생태적 현상자체에 대한 연구와 함께 생태적 사고와 생태적 방법에 더 중심을 두어 생태적 원리 그 자체를 계획과 설계시공에 적용하는 노력을 해야 한

다. 최근 이러한 생태적 접근으로서 에코폴리스(생태도시) 계획, 소생태계(Biotope) 조성과 자생식물(야생화등)의 적극적 도입이 그 사례로서 들 수 있다.

여기서 생태적 원리 즉 생태적 안정성, 자립성, 순환성 그리고 다양성에 입각한 환경의 복원, 창출 및 관리를 위한 노력이 이루어지고 있다.

(3) 생태조경의 전망

생태적 측면의 고려를 요구하는 시장은 가까운 시일 내에 현재 일반적인 조경시장 이상의 규모로 성장할 것이다. 공원이나 단지개발과 같은 전통적으로 조경의 분야로 인식된 부문은 물론이며 과거 조경부문의 참여가 배제된 개발사업 및 훼손지 복원과 생태복원등에서 조경에 대한 수요는 계속적으로 증가하고 있다.

한강 수질개선에 있어서도 인공 습지대의 조성, 자연형 하천의 조성과 같은 접근이 정부 차원에서 이루어지고 있으며 도로 및 철도개설에 따른 부정적 영향을 개선하기 위한 생태이동통로 조성 등에 있어서도 조경의 참여는 요구되어지고 있다.

종래와 같이 시각적인 요소에 치중하는 조경은 시간이 경과함에 따라 그 한계를 드러내게 될 것이고, 새롭게 생태조경에 관심을 두고 기술적으로 학

술적으로 개발하고 대처하지 않으면 결국 확산일로에 있는 생태적 수요를 타 분야에 잠식당하고 말 것이다. 생태조경을 위해 필요한 자연과학적 측면에서의 지식부족, 시스템적 사고의 부재는 이러한 생태분야의 전문가들과 협동작업을 힘들게 하고 있으며 일반론적인 견해의 반복으로 말미암아 상호 차별화된 모습을 보여주지 못하게 될 것이다.

생태적 접근은 계획, 설계, 시공으로 나뉘어지는 조경의 전 부문에서 이루어져야 하며 이를 위한 조경부문 스스로의 노력을 경주해야 하는데 전문성의 부재, 생태적 관계와 특성에 대한 몰이해 등은 조경의 미래를 가로막는 주범이라 할 수 있을 것이다. 그리고 확대되고 있는 생태조경의 시장을 일회적, 단기점 관점에서 접근하는 것은 전체 조경영역의 잠식을 가져올 수도 있다. 이점과 관련하여 조경 각 부문에서 생태적 관심이 더욱 요구된다.

본질적으로 생태조경이란 것이 생태계의 기작을 조경에 적용하여 환경과 인간, 자연과 인간이 공생(Symbiosis)하는 공간으로 만들자는 것이니, 환경의 수용능력안에서 적절한 개발이 이루어질때 미래세대에게 지속 가능하고 쾌적한 생활공간을 남겨줄 수 있을 것이다.

생태도시, 생태관광, 생태기술 등 생태라는 접두어의 등장을 계기로 생태조경의 새로운 비전을 모색해야 할 때라고 생각한다. 그리고 생태조경은 새로운 조경의 영역확대로 주요 관심분야가 될 것이며 조경은 타 환경분야와 도시 및 지역환경 계획을 포함하는 분야가 될 것이다. 단순한 환경보전과 보전의 차원을 넘어선 보다 적극적인 자연환경복원과 창출을 우리 사회가 지향하는 환경적으로 건전하고 지속가능한 개발(ESSD) 목표의 달성에 크게 기여하게 될 것으로 확신한다.

조경수

